

본 작품들의 열람기록은 로그파일로 남게 됩니다. 단순 열람 목적 외에 작가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의 허락없이 이용하거나 무단 전재,복제, 배포 시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작 품 소 개 서

구 분	내 용
이야기 소재 (Motive)	<p><input type="checkbox"/> 작품제목 : 키작은 선생님</p> <p><input type="checkbox"/> 작품장르 : 만화(One Source) → 드라마 및 영화(Multi-Use)</p> <p><input type="checkbox"/> 작품개요</p> <p>상상이 아니라 현실로 와버린 이야기. 하지만 아직까지는 쉽게 이루어 질 수 없는 이야기. 요즘에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뛰어남에 따라 영재에 대해 논란이 끊이지를 않고 있다. 영재라지만 나이가 어려서 대학을 가느니 나이에 비해 학년이 높아지는 것이니 하는 것은 주위의 말과 시선으로 제한을 받고 있다. 물론 어렵사리 대학에 들어가거나 어린나이에 교수가 된 예는 있다. 외국에서도 17세에 대학 교수가 된 사례가 있으며 12살에 박사학위까지 받은 아이도 있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영재의 본인의 감정을 생각하지 않을 때가 흔히 있을 것이다. 그런 감정을 나타내는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고, 흔히 볼 수 있는 형제, 남매간의 비교. 더 뛰어난 자에 대한 시샘과 질투. 현실 속에 있는 이야기들이 나타나 있는 스토리인 것이다. 그런 갈등들에게 등을 돌리지 않고 맞서 싸우는 주인공과 그 용기로 인해 인식이 점차 좋게 변해가는 과정을 담은 이야기이다.</p> <p>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를 토대로 구성하여 주위의 기분과 인식을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스토리인 것이 매력인 것이다.</p> <p>▣작품에서 의도하는 ‘키 작은 선생님’의 뜻</p> <p>어떻게 보면 키 작은 선생님이라고 하면 키가 작은 선생님이라고 생각 할 수 있다. 물론 사실이다. 키가 작은 선생님을 뜻하는 것이며, 깊은 뜻으로는 선생님이 될 수 없는 나이이지만 선생님이 되어버린 주인공을 뜻하는 말이기도 한 것이다.</p>
스토리 구성 (Plot)	<p>어릴 때부터 영재라고 불리는 주인공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뛰어남을 인정받아 자신의 또래의 아이들이 다니는 고등학교 임시교사로 발탁 받게 된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으로 인해 첫 시작은 편하지만은 않았다. 주변의 꾀박과 질투. 시기에 의해 주인공은 힘들어 하지만 자신의 꿈을 끝까지 이루기 위해 항상 힘을 내며 밝고 긍정적으로 사태를 헤쳐 나간다.</p> <p>주인공으로 인하여 주변의 사람들이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어 나가고 새로운 빛을 보게 된다. 긍정과 용기, 희망, 강한 의지만 있다면 자신의 꿈은 꼭 이루어진다고 믿으며 어려운 일도 척척 풀어 나가는 주인공을 보며 아무리 똑똑하고 영재라도 우리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준다.</p> <p>막상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보여주는 주인공의 수줍어하는 행동은 평범한 고등학생으로 보인다. 주인공이 완전히 인정받는 그 날까지의 스토리를 담아 내며 남들과는 다름없이 평범해 보일 것 같기도 하고 특별한 것 같기도 한 주인공 '란연우'의 일상을 보여준다.</p>

캐릭터 또는
등장인물 소개

□ 주요 등장인물 소개

1. 란 연우(17살, 남)

▣주인공. 유물에 대해 관심이 많아 역사에 영재라고 불릴 정도로 뛰어나 어릴 때부터 세계각지를 돌아다니며 공부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교수와 함께 유물을 검증 검토하는 일의 조수로 일하고 있다가 나이 17세에 고등학교 임시교사를 추천 받게 된다. 첫 대면에 영재라는 말에 다들 꺼려하지만 그는 곳곳하게 함께 하려고 다가서며 인간다운 면과 솔직담백한 표현으로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기 시작한다.

▣영문 : Ran Yeon-u

▣성격 : 쾌활하고 안되는 것을 되게 하려는 노력과. 정이 많고 솔직담백한 성격

▣특징

·정신적 : 어렸을 때부터 영재라는 소리를 듣고 자라서 서로 비교하거나 비교되는 것을 싫어한다. 탐험의식이 강하다.

·신체 : 또래에 비해 키가 작은 편이다. 키는 155cm

·행동 : 유물이나 역사학에 관심이 많아 특이한 모양의 물건을 보고 못 지나 칠 정도로 관심이 많아 수집을 즐겨한다.

▣취미 : 유물이나 특이한 모형들을 수집하는 것

▣좋아하는 것 : 유물

▣싫어하는 것 : 흰 우유(그래서 키가 안 크는 것 같음)

▣생일 : 12월14일 (탄생화 : 소나무 / 꽃말 : 용감)

2. 최 홍일(32살, 여)

▣연우의 담당 교실의 (여)담임. 체육선생님. 매일 추리닝 복장에 올림머리를 하고 있다. 수수하고 착하게 생긴 얼굴답지 않게 행동이 과격하고 말이 솔직한 편이라 남이 상처받기 쉽다. 미혼이고 성격 탓인지 선을 볼 때 마다 실패한다.

▣영문 : Choe Hong-il

▣성격 : 너무 솔직하고 과격한 성격.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한다. 의리가 있다.

▣특징

·정신적 : 쉽게 질투하고 좋아함을 바로 말하는 솔직하고 순수한 성격.

·신체 : 하루 종일 추리닝 차림으로 돌아다닌다. 꾸미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화장도 안한다.

·행동 : 얼굴을 마주치자마자 사람을 평가한다. 그래서 그런지 악의는 없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싫어하는 편이다. 하지만 의리가 있어 미워만 할 수 없는 타입이다.

▣취미 : 액션 영화감상

▣좋아하는 것 : 아이스크림(바닐라 맛)

▣싫어하는 것 : 잘난 척 하는 사람

▣생일 : 7월17일 (탄생화 : 하얀 장미 / 꽃말 : 존경)

3. 신 예미(17살, 여)

▣연우의 어릴 때 첫사랑. 뒤에서 지켜보기만 했던 첫사랑이 자신이 맡은 반의 학급반장이었다. 하지만 예미는 알지 못한다. 조용하고 차분해 보이며 항상 주변에는 친구들이 많이 모여 공부를 가르쳐 주고 있다. 하지만 예미는 본 성격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

▣영문 : Sin Ye-mi

▣성격 : 입을 다물고 있으면 얄전하고 착해 보이지만 본 성격은 도도하고 자신의 주장이 강한 성격. 그 점이 매력인지 사람들이 많이 따른다.

▣특징

·정신적 : 자기 위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 독점욕이 강하다.

·신체 : 주변에서 인기가 많은 정도의 외모.

·행동 : 교실에서는 항상 친구들에게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고 질서를 잡아준다. 학급의 반장.

▣취미 : 쇼핑

▣좋아하는 것 : 예쁘고 화려한 액세서리.

▣싫어하는 것 : 벌레, 혐오스러운 물건 등등

▣생일 : 6.4 (탄생화 : 담홍색장미 / 꽃말 : 아름다운 얼굴)

4. 이 민혁(28살, 남)

▣연우의 과 선배. 연우와 같이 같은 학교에 오게 된다. 하지만 임시 교사가 아닌 교사로 오게 된다. 연우는 민혁과 다소 갈등을 겪지만 서로 인생을 상담하는 사이가 된다. 친절하다보니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다.

▣영문 : Lee Min-hyeok

▣성격 : 친절하고 매사에 순응하는 성격. 침착하고 충고를 하거나 화가 났을 때는 냉정하다.

▣특징

·정신적 : 남이 하는 말을 잘 들어주며 조언을 잘 해준다.

·신체 : 머릿결이 갈색 빛이 많이 난다. 한국적인 느낌도 나지만 머리색이 갈색 빛이 나서 그런지 서양적인 분위기도 느껴진다.

·행동 : 남을 잘 도와준다. 걷는 것을 좋아해 항상 아침마다 학교 한 바퀴를 걷고 하루를 시작한다.

▣취미 : 드라이브.

▣좋아하는 것 : 산책

▣싫어하는 것 : 단 것. 초콜릿이나 사탕 등등.

▣생일 : 4.23 (탄생화 : 도라지꽃 / 꽃말 : 상냥하고 따뜻함)

5. 란 연길(18살, 남)

▣연우의 한 살 위의 형. 연우와 다른 정 반대의 성격. 항상 사고만 치고 다니고 학교의 수업을 빼먹는 일은 수업 듣는 일보다 더 많다. 어릴 때부터 연우와 비교 대상이 되기 쉬웠기 때문에 연우를 싫어하게 되었고 15세 되던 해 독립을 선언하고 집을 나갔다. 연길은 연우가 다니게 되는 학교의 학생이었고, 어떻게 하다 보니 연길은 연우가 짝사랑하던 예미를 좋아하고 있었다. 더욱더 연우와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영문 : Ran Yeon-gil

▣성격 : 파괴적이고 난폭하다. 항상 신경이 날카롭다.

▣특징

·정신적 : 어릴 때부터 비교당하며 자라 와서 그런지 자신외의 사람들에게 불친절하다. 항상 안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한다.

·신체 : 연우와 달리 키도 크고, 운동도 잘해 튼튼한 몸을 가지고 있다.

·행동 :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 다닌다. 잘 보이진 않지만 귀엽고 작은 동물들을 좋아한다.

▣취미 : 차가운 새벽공기에 오토바이 타고 다니기.

▣좋아하는 것 : 오토바이, 작은 동물

▣싫어하는 것 : 동생. 비교하는 것.

▣생일 : 12.13 (탄생화 : 자주색 국화 / 꽃말 : 사랑)

6. 하 소리(17살, 여)

▣예미의 소꿉친구이자 연우의 소꿉친구. 원래 이 셋은 잠시나마 소꿉친구였으나 연우가 외국으로 가버리자 예미에게는 잊혔지만 소리는 기억하고 있었다. 다른 아이들에 비해 연우를 이해하고 항상 뒤에서 도우려고 노력한다. 원래 내성적이고 소심한 아이였지만 연우를 도와주면서부터 적극적이고 활발한 성격을 보여준다.

▣영문 : Ha So-ri

▣성격 : 내성적이고 소심하다. 하지만 친구를 위할 줄 알며 희생적이다.

▣특징

·정신적 : 자신의 주장을 잘 세우지 못하지만 연우를 만나고 부터는 자신감을 갖게 되고 자신의 주장을 내세울 정도로 변화된다.

·신체 : 통통한 편이고 의외로 힘이 세고 운동신경이 뛰어나다. 하지만 표를 내지는 않는다.

·행동 : 항상 구석에 앉아 책을 보고 있거나 예미를 따라다니며 힘든 일을 자기 스스로 맡아서 한다.

▣취미 : 사진촬영

▣좋아하는 것 : 음악 감상, 독서

▣싫어하는 것 : 커피

▣생일 : 10.16(탄생화 : 이끼 장미 / 꽃말 : 순진무구함)

1. '키 작은 선생님'의 시놉시스

어느 날 주인공에게 닥친 시련.

주인공은 교수님의 추천으로 임시교사로 발탁되어 남녀공학 고등학교로 가게 된다. 꿈에 그리던 선생님이 되어 보는 기회였다.

하지만 그에게는 단점이 있었으니... 주인공은 키가 작았다.

그의 나이 17세. 한참 고등학교의 새파란 새싹일 나이에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친분이 있는 대학 교수를 도와 드리며 일을 배워가고 있었다. 그런데 드디어 기회를 얻은 것이었다.

주인공은 대학선배의 다독임으로 마음을 채우고 고등학교의 교문을 처음으로 밟게 된다.

온몸이 짜르르 전기가 돌는 듯이 기분이 짜릿했다. 두근거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주인공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학교에 침입(?) 성공한다.

교무실로 들어오자 느껴지는 시선은 역시나 짜늘하고 차가운 시선들이었다. 주인공은 교장의 당부와 말씀과 함께 앞으로 말을 반의 답임과 인사를 나누게 했다. 초라하게 추리닝을 입고 몸을 굽적이고 있는 선생님. 하지만 모습과 반대로 외모는 수수하고 착하게 보이는... 여자 선생님이었다.

하지만 주인공을 보자 답임의 한마디.

“짜증나는 타입이군.”

그 한마디에 충격 받은 주인공. 과연 학교생활을 잘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루하루의 시작이 따가운 시선이 되어버린 주인공. 하지만 그 시선에 굴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을 한다. 그 모습을 보고 점차 주변의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다가오게 된다. 옆에서 의지해주는 선배와 주인공을 괴롭히며 악역을 자청하여 그로 인해 주인공이 빛을 발하게 해준 한 선생님... 그리고 심적이나마 힘을 내도록 도와주는 첫사랑의 소녀. 같은 학교에서 마주 칠 때 마다 주인공은 짝사랑에 대한 심정을 보여준다.

그렇게 시작되는 키 작은 선생님의 학교 생활이야기. 자신의 또래의 남녀 학생들과 시샘, 미움의 시선 속에 피어나는 우정과 사랑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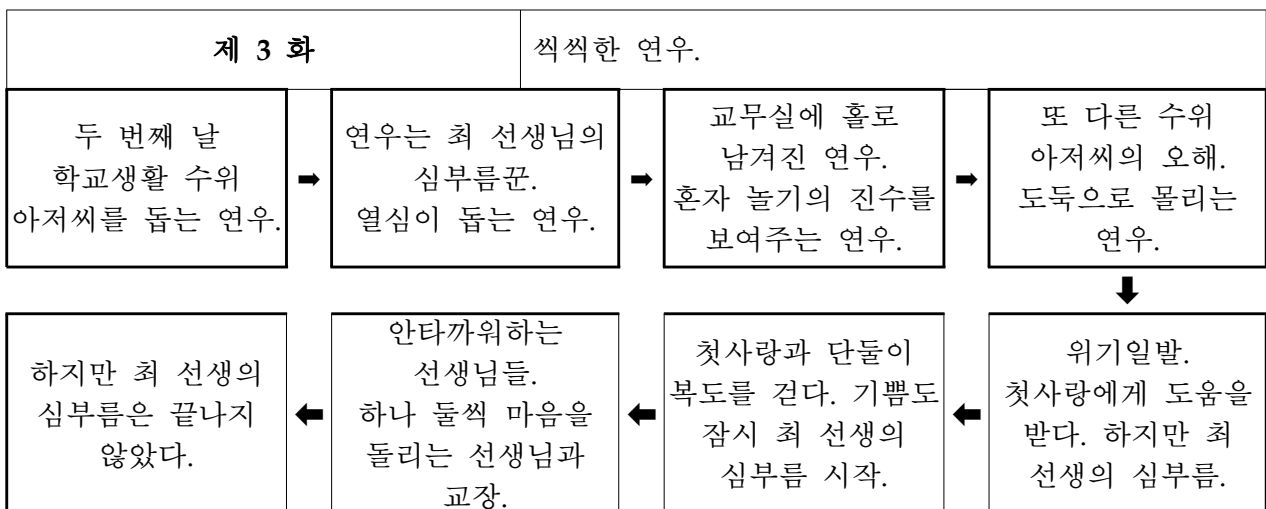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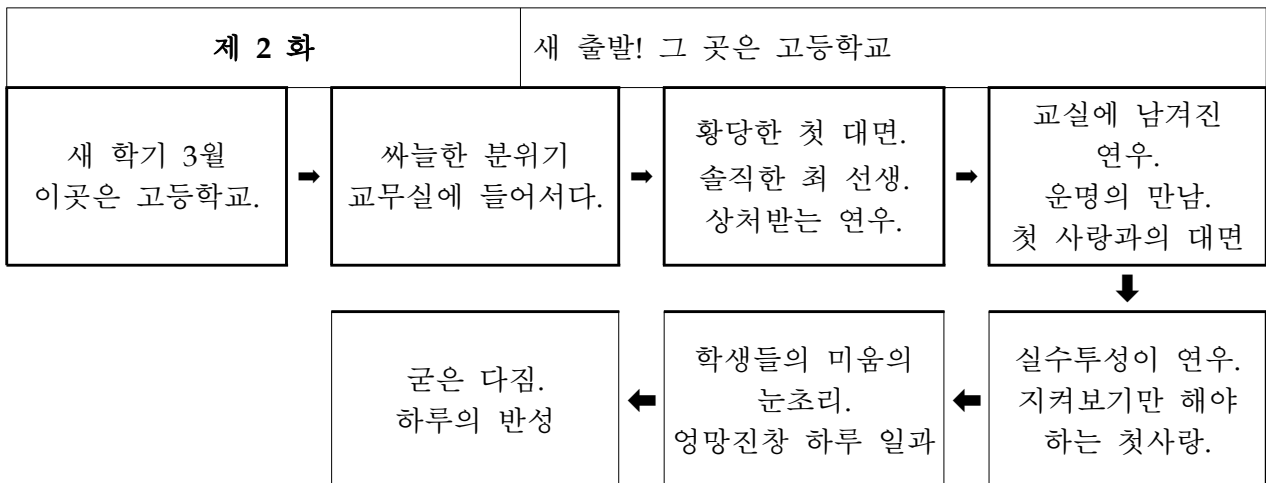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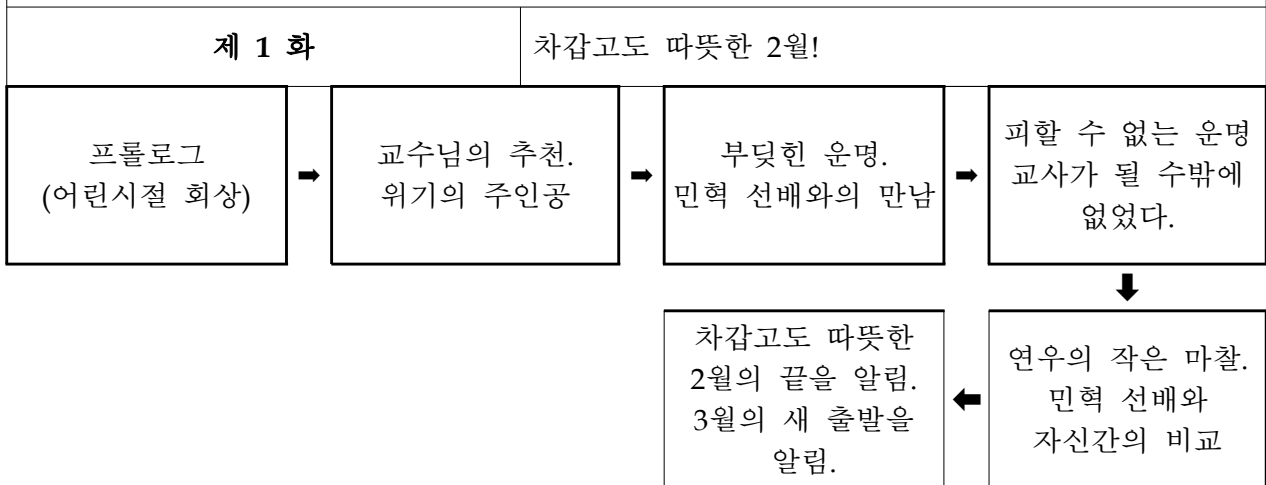
하지만 그 순간 주인공은 또 다른 마찰을 일으키게 된다. 바로 형제간의 마찰. 서로 다른 입장이다 보니 마찰은 더욱더 심해진다. 더구나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한 마찰도 생기게 되어 버리는데! 서로를 오해하며 미워하지만 결국 나아가서는 오해를 풀고 더욱더 짙어지는 형제애. 많은 사건사고들이 오가며 주인공은 성장해 나간다. 오히려 평범함이 더 돋보이게 되는 주인공. 모든 이들은 그런 평범함에 따뜻함을 느끼게 된다.

주변 이들도 행복한 생활을 맞게 되고 주인공은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충실하게 된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고난은 이어지고... 자신을 지탱해주는 이들이 다 떠나버리고 홀로 남게 된 주인공은 과연 어떤 재치로 그 고난들을 이겨나갈 것인가?

2. '키 작은 선생님'의 스토리라인

작품구성 : 1권의 총5화



제 4 화		인기 좋은 남자.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 운동장을 도는 민혁. 그 모습을 보기위해 일찍 오는 아이들.	→	교무실에 항상 선물더미. 여선생님의 마음도 사로잡은 민혁. 하지만..예외도 있으니...	→
		이제는 티격태격. 누님 같은 최 선생. 동생 같은 연우. 그 사이의 민혁.	→
			방과 후 선생님들의 피구 대회
↓			
다음 날, 티격태격 최 선생vs민혁. 알고 보니 민혁의 작은 질투였다.	←	집으로 가는 길. 알 수 없는 웃음의 민혁. 의아해하는 연우.	←
		민혁의 실수? 연우를 방패삼아 살아남다. 최 선생의 일격필살 파워! 한방에 날아가는 민혁.	←
			무시무시한 대결. 민혁 vs 최 선생 그 밖의 생존자. 연우.

제 5 화		첫 수업.	
어느 정도 사이가 좋아진 선생님들과 연우. 아침 회의 때 교장의 수업허가!!	→	이게 웬일. 첫 수업이 최 선생 대신 수업. 수업은 체육.	→
		배구 잘하는 남학생과 배구 못하는 연우. 위기일발! 강 스파이크!	→
			여학생이 연우를 보호하다. 쓰러진 여학생! 다급해진 연우. 양호실에 가다.
↓			
첫사랑이 사랑에 빠지다. 상대는 민혁. 관심 없는 민혁. 연우 첫사랑에게 미움 받다.	←	갑자기 양호실 폭주. 연우가 다친 줄 알고 달려온 민혁과 최 선생. 민혁에게 부딪힌 첫사랑.	←
		양호실에 찾아온 첫사랑. 관심 없는 눈빛의 첫사랑. 이 셋의 비밀.	←
			여학생의 고백. 그녀는 연우의 소꿉친구.

작품구성 : 2권의 총5화

제 1 화		악동들에게 선행을	
제대로의 첫 수업이 있는 날. 하지만 힘든 환영식. 하지만 꾀꾀 수업하는 연우.	→	교무실에 오자 웬일로 선물상자? 하지만 그건 악동들의 장난 상자였다.	→
		괴롭힘에 익숙해져버린 연우. 이제 피하는 요령까지 터득한다.	→
			수업 끝. 먼저 서점에 불일이 있어 가는 연우.
↓			
하지만 선생님이라는 이유로 볼 때 마다 대접하는 연우. 악동들에게 낯이다.	←	악동과 우정이 쌓여버린 연우. 점점 친구를 만들어 나간다.	←
		기대하지 않는 악동. 사라져버리는 연우. 하지만....	←
			골목길의 불량배. 당하고 있는 악동들?! 눈이 마주쳐버린 악동과 연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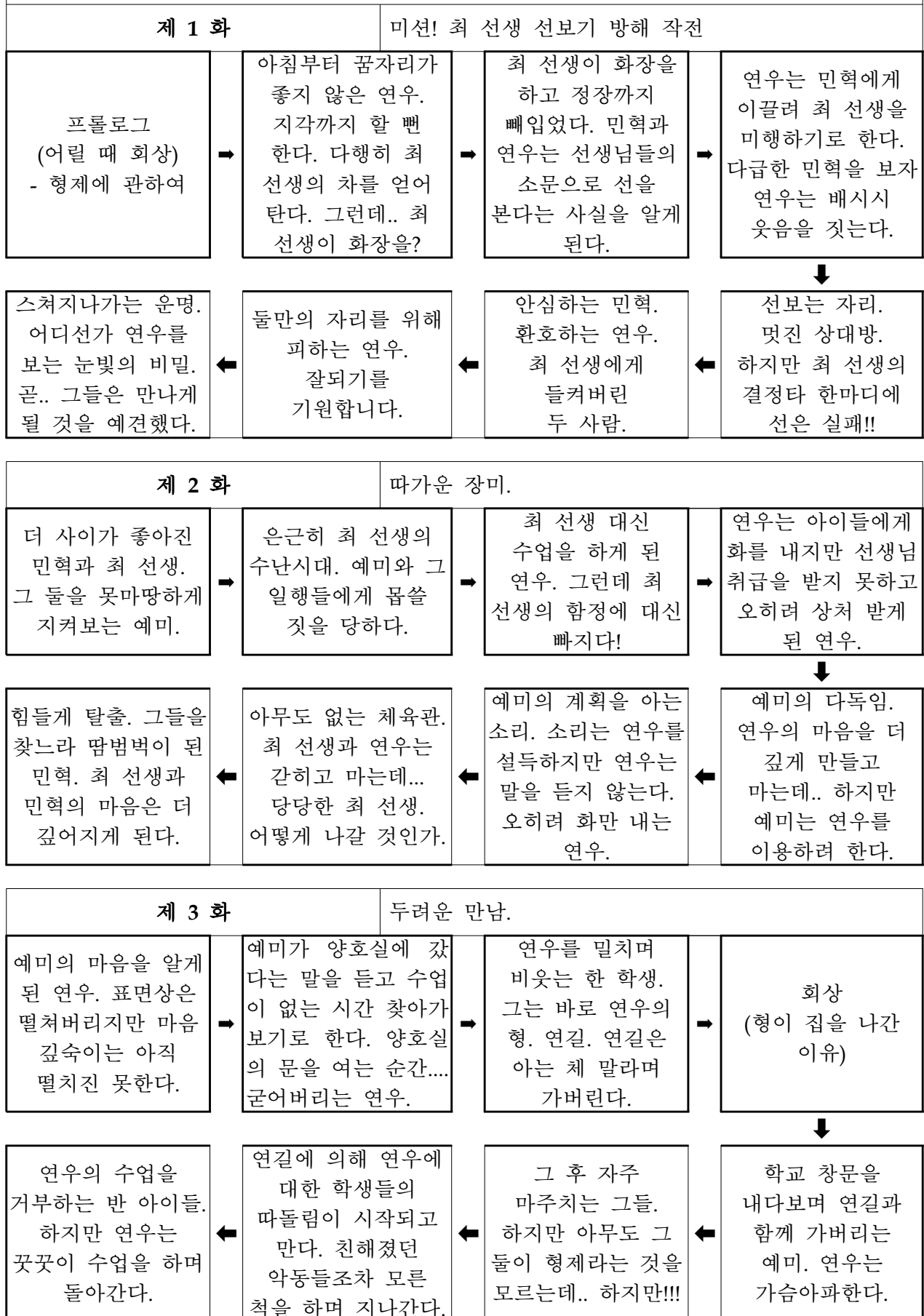
제 2 화		지켜서 볼 수밖에 없는 그녀.	
수업을 하며 누가 볼세라 힐끗 힐끗 첫사랑만 바라보는 연우.	→	항상 뒤에서 그녀를 바라보는 모습을 소꿉친구인 소리에게 들키고 만다.	→
		그 상황을 지켜보는 눈치 빠른 소리. 용기 내어 연우를 도와주려 한다.	→
			소리의 계획. 놀이공원에 가기로 하다. 하지만 눈치 없는 연우로 인해 일이 꼬여버린다.
↓			
무알콜 음료로 마음을 달래는 연우. 밤은 깊어지기만 했다.	←	민혁이 가자 첫사랑인 예미도 재미없다며 소리를 데리고 가버린다. 홀로 남은 연우.	←
		연우는 민혁에게 오해를 사게 되고 민혁은 화가나 집으로 돌아간다..	←
			주말이 되고 그들은 만나게 된다. 보호자로 동행한 민혁. 소리의 계획은 실패하고 만다.

제 3 화		최 선생의 화해작전!	
교무실에 들어 사자마자 연우와 민혁의 시선은 피해버린다.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교무실.	→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 민혁으로 인해 그 화살은 연우에게 다 돌아와버린다.	→
		모두들 수업에 들어가고 교무실엔 민혁과 연우만 남는다. 그런데 돌연 최 선생의 등장?!	→
			한 참 수업 중 최 선생의 등장에 놀란 둘. 둘은 최 선생에게 끌려 체육관으로 간다.
↓			
하지만 결국 연우의 마음을 그 둘에게 들키고 만다.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	둘의 오해는 공으로 인해 풀리고 최 선생은 만족 해 한다.	←
		셋은 점점 공을 주고받다가 어느새 민혁과 연우가 공을 주고받기 시작한다. 점점 사나워지는 그들...	←
			최 선생은 갑자기 민혁에게 공을 세게 던지며 한마디 한다. 놀란 연우와 민혁.

제 4 화		인기 많은 공주님.	
그 후로 인해 최 선생과 민혁은 연우와 예미를 엮어주기 위해 교무실로 부르지만 연우는 부담스럽기만 하다.	→	연우에게 관심 없는 예미는 오로지 민혁에게 관심을 가진다.	→
		기분 좋은 예미는 실수로 수업시간 2분전에 교무실을 나간다. 다급해진 마음으로 달려가는데...	→
			계단을 올라가다 내려오는 사람을 보지 못하고 부딪히고 마는 예미와 한 남학생.
↓			
다음날도 역시 예미의 주변에는 남학생들이 몰려있다. 연우는 눈물을 머금으며 지켜볼 뿐이었다.	←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민혁은 연우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기로 하지만 연우의 식욕은 오늘따라 유난히....대단했다.	←
		학교업무가 끝나고 연우는 창밖을 바라다 본다. 그런데 예미가 누군가와 오토바이를 타고 가버렸다.	←
			문 듯 그 남학생은 예미를 보고 한눈에 반해버린다. 수업에 들어갈려던 최 선생의 등장으로 남학생은 끌려 교실로 돌아간다.

제 5 화		세 사람의 휴일.	
학교생활에 적응을 하기 시작한 연우. 회사에서 회식을 하기로 한다. 술자리라 연우는 빠지고 집으로 간다.	→	모처럼의 휴일. 다짜고짜 최 선생은 집으로 찾아와 연우와 민혁을 끌고 어디론가 데려간다.	→
		넓은 바다. 최 선생은 연우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온 것이다. 순간 장난 끼가 발동한 연우와 민혁. 결국 최 선생을 물에 빠뜨린다.	→
			물에 폭삭 젖은 최 선생은 피력으로 그 둘도 물에 빠뜨리고 만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추워지자 연우는 마실 것을 사로 간다.
↓			
차를 세워둔 곳으로 가니 ... 이런 건인되었다. 과연 셋의 운명은...	←	묘한 분위기가 흐르다 연우를 위해 애써 웃는 두 사람. 연우는 두 사람에게 팔짱을 끼며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말한다. 그들은 그 말에 미소를 짓는다.	←
		연우가 오는 동시에 최 선생의 폰이 울린다. 당황한 두 사람. 최 선생은 허겁지겁 전화를 받다 소리를 지른다. 선보라는 엄마의 말씀.	←
			민혁과 최 선생의 둘만 남자 정적이 감돌았다. 그 순간 최 선생의 머리카락에 벌레 한 마리가 올라온다. 기겁하는 최 선생. 의외로 굳어버린다.

작품구성 : 3권의 총5화



제 4 화		미워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라.	
연우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서 민혁과 최 선생은 소풍을 가기로 한다. 또래의 친구인 소리도 부르게 된다.	→	첫 소풍이라는 것에 감동을 한 연우는 기운을 차리게 된다.	→
		민혁과 최 선생을 위해 자리를 비키는 연우와 소리. 소리는 용기를 내어 연우에게 힘을 실어준다. 감동한 연우.	→
			연우는 본격적으로 아이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버리기 위해 노력을 한다. 마음이 흔들리는 아이들.
↓			
연길보다 연우의 기분이 슬프게 다가오자 연길은 마음을 돌린다.	←	그 것을 알게 된 연우. 연길에게서 소리를 구해내고 오히려 이때까지의 일을 연길에게 다 말한다.	←
		연길의 소문으로 인해 오히려 연길이 상황이 불리해 지고 소문을 이겨낼 수 없자 소리를 몰아세우는데...!	←
			소리는 문 듯 길을 건다 연길이 하는 말을 듣게 되고 피를 내어 연길에 대한 소문을 내기 시작한다.

제 5 화		엇혀사는 형. 돈 버는 동생.	
아직까지 연우를 잘 받아드리지 못하는 연길. 오늘도 땡땡이치며 골목길을 걷는데..	→	형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자 바로 달려가는 연우. 연우는 상처투성이가 되어가며 형을 구하러 든다.	→
		뒤 늦게 도착한 민혁과 최 선생. 화끈한 몸놀림으로 아이들을 제압한다. 하지만 연우는 많이 다치고 마는데...	→
			형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는 동생을 보며 형은 마음을 연다. 하지만 예미는 양보 못한다는 말. 형제는 친해졌다.
↓			
연우는 점점 활발해지는 소리를 보며 자신도 모르게 호감을 가지게 된다.	←	두 사람이 형제라는 것을 알게 된 소리는 덩달아 연길과 친해진다. 물론 연길은 예미와 친해지기 위해서였다.	←
		연길의 기쁨도 잠시... 동생이 선생님이기 때문에 절대 학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신세가 된다. 놀라는 전교생들.	←
			형제가 몇 년 만에 다시 뭉치자 조금 어색함이 있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 연길이 동생의 집에 엇혀살게 된다.

작품구성 : 4권의 총5화

제 1 화		다가오는 여름날.		
형이 얹혀살자 생활비가 빠듯한 연우. 결국 주말에도 일을 찾게 된다. 하지만 어려서 구하기는 어려운데..	→	힘들게 일을 찾아 카페에서 일하게 되었다. 그런데 손님이 별로 없어서 매상이 좋지 않았다.	→	매상이 좋지 않아 잘리려는 위기에 놓인 연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붐비기 시작하였다.
			→	알고 보니 형이 밖에서 팻말을 들고 도와주고 있었다. 안에 들어가면 17살 교사 볼 수 있음. 관람료 공짜. 재수 없으면 막 시키면서 부러먹으시오.
↓				
세 명의 계획으로 연우의 봉급은 여름방학 바캉스에 쓰여 지게 되어버리고... 연우는 그 날을 기다리게 된다.	←	하지만 결과는 난장판이 된 곳은 민혁, 최선생, 소리, 연길과 연우가 치운다. 다행히 잘리진 않게 되었다.	←	갑자기 사건발생! 연우의 학교 학생무리들이 연우를 괴롭히는데... 하지만 연길에게 혼쫓이 난다.
			←	문득 찾아온 반가운 손님들. 민혁, 최선생, 소리가 찾아온다. 일단 바쁜 연우를 뒤로한 채 맛있는 걸 시켜먹는다.

제 2 화		공포의 야자학습!!		
시험이 다가오자 야자학습이 시작되었다. 선생님들은 밤늦게까지 시험문제 내라 지쳐서 쓰러질 정도였다.	→	시험문제 출제 끝. 지치고 있는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도 날릴 겸 선생님들은 무시무시한 계획을 세우게 된다.	→	어느 어둡해진 날. 아이들은 여전히 조용하게 야자를 하는데... 선생님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	귀신분장을 하고 각자 맡은 반으로 간 선생님들. 연우도 1학년 13반으로 가는데.. 그런데 13반이 있었나?
↓				
그런데 최 선생님의 말.. 그 곳은 문이 잠겨 있는데 어떻게 들어갔냐는 등.. 그 순간 연우는 기절을 한다.	←	오랜만에 말이 통하는 학생과 상담 격 이야기를 하다 교무실로 가봐야 하는 연우. 연우는 인사를 하고 돌아선다.	←	다행히 그 곳에는 야자시간타임에 배고픔에 굶주린 학생이 있었던 것.
			←	문을 여니 그 곳은 과학실?! 기겁한 연우는 눈앞에 있는 두 사람의 형상을 보게 되는데!!

제 3 화		의미 있는 여름 방학.		
여름날의 바캉스!! 그들은 바다를 향해 출발한다. 연우, 연길, 소리, 민혁과 최선생. 이렇게 다섯이서..	→	서로 해변에서 재미있게 놀며 우정과 친분을 쌓아가기 시작한다. 모닥불을 피우며 진실게임을 시작하는데...	→	진실게임으로 정말로 서로의 진심들을 알게 되고... 한쪽은 기뻐하며 한쪽은 고민하게 되는데..
			→	모처럼 물에 들어가지 않으려는 소리를 끌고 연우는 물가로 간다. 안경을 벗는 소리. 그 순간 연우의 마음이 쿵닥~
		아직 예미의 마음이 확실치 않아 둘은 고민만 하게 되고...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 그들은 말이 없었다..	←	형제는 또 다시 갈등. 확실히 같은 여자를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	소리의 마음을 알아보기 나서는 민혁과 최선생. 하지만 좀처럼 드러내지 않는 소리의 마음.

제 4 화		여자의 마음은 갈대!		
당당함이 많아진 소리. 예미조차 이제 소리를 마구 부러먹지 못했다. 오히려 더 친구다워진 듯한 둘의 분위기.	→	여전히 예미를 바라보는 연우. 예미는 민혁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	→	예미는 소리를 통해 개인적으로 민혁을 만나게 된다. 민혁은 이 참에 예미에게 확실히 무언가를 말한다.
			→	다음날, 예미는 민혁을 신경조차 하지 않는다. 이제는 똑똑하게 생긴 상급생을 좋아하게 된 예미.
			←	연우와 연길은 자신들이 예미의 타입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하고 느끼게 된다.
		역시 형제는 못 오를 나무를 보고 있었던 것이었을까.... 결국.. 둘 다 짝사랑으로 끝이 나버렸다.	←	

제 5 화		안녕! 잘 가요. 최 선생.		
이번에 새로운 선생님이 전근해 왔다. 꽤 젊은 나이의 여선생이었다.	→	은근히 연우를 무시하는 선생님. 교장선생님이 없을 때 최 선생님은 새로 오신 선생님과 다투기 까지 한다.	→	그런 날들이 있은 후 최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교장선생님과 이야기를 하는 날이 잦았다.
			→	연우는 민혁의 말에 놀라고 만다. 최 선생님이 학교를 그만두신다는 것!!!
		행복한 결혼식! 학생모두 선생님 모두 그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해주게 되고 둘은 신혼여행을 떠난다.	←	알고 보니 최 선생님이 결혼을 하게 되어 그만두게 된다는 사실! 그것도 그 상대는 민혁!
			←	자기 자신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짐까지 알아내 찾아가는 연우. 그런데...
			←	최 선생이 퇴사를 하고 교무실은 썰렁한 분위기가 감돌고 최 선생이 대신 새로 오신 선생님이 그 반을 맡게 된다.

주) 작품의 제작구성 및 권수는 제작장르(만화, 드라마)에 따라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3. '키 작은 선생님'의 대표설정이미지



주) 대표 연출 컷 : 학교 옥상에서의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좌충우돌 추억

4. '키 작은 선생님'의 시나리오

키 작은 선생님 제1권	
제 1 화	차갑고도 따뜻한 2월!
<p>‘어머! 저 애 영재라며? 얼마나 잘났을까?’ ‘야. 쳐다보잖아? 영재면 다야? 엄청 부러워 죽겠네. 학교도 건너뛰고 벌써 대학 가려고 준비 중이래.’</p> <p>항상 이런 식이었다. 그런데 대학에 와서 연우의 삶은 180도 바뀌었다. 주변에서는 정말 자신의 친구처럼 도와주고 의견도 존중해 주는 것이었다. 이제는 대학을 졸업을 앞두고 유능한 교수님의 아래에서 일을 돕고 있다.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 연우는 즐거웠다. 대학 친구들도 곧 졸업할 것이지만 졸업을 해도 친구로 있을 테니 이젠 누가 뭐라고 해도 연우는 행복했다. 이대로 교수님을 도와가며 배우고 여행하는 일을 계속하고 싶다.</p> <p>그런데 어느 날, 교수님은 일하고 있는 연우를 불러 세우고 활기차게 웃으신다. 연우는 이유도 모른 채 그냥 덩달아 웃을 뿐이었다. 교수님은 ‘축하하네!’라는 말과 함께 연우의 손에 봉투를</p>	

취어 주신다.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그 속에는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다. 그것은 임시 교사 추천서였다.

연우는 미소를 지으며 기뻐했다. 어렸을 때부터의 꿈이었기 때문이었다. 좋은 기회였다. 연우는 교수님께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라고 크게 말했다. 교수님도 뿌듯한 표정을 지으며 어깨를 툭툭 치며 다독여 주셨다. 교수님이 나가시고 연우는 자리에 앉아 다시 한 번 추천장을 들여다 보았다. 그런데 자신이 들고 있는 종이를 자세히 보니... 다름 아닌 고등학교.

고등..

고..

고등학교오???!!!



순간 연우는 앉아 있던 의자와 함께 뒤로 나동그라 졌다. 부들 부들 손을 떨며 종이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연우는 자신의 나이를 생각하고는 침을 꿀꺽 삼켰다. 연우는 순간 얼굴이 퍼렇게 질리더니 자신이 어릴 때 자신의 또래와 함께 있을 때의 안 좋은 추억들이 새록새록 피어올랐다. 이번에도 또 자신의 또래 속에 섞이게 되지만 엄연히 또 다른 존재일 것이다.

연우는 급히 교수님을 찾기 위해 연구실을 박차고 나갈 찰나 누군가가 들어왔다.

[쿵-]

문이 열리고 그 두 사람은 결국 부딪히고 말았다.

“아야야... 으응? 민혁 선배?!”

부딪힌 사람은 다름 아닌 과 선배였다. 민혁 선배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연우를 잡아 일으켰다.

“어딜 그렇게 급히 나가려는 거야?”

민혁 선배의 말에 연우는 주춤하다가 의자에 풀썩 앉으며 한숨을 쉬었다. 민혁 선배도 의자를 끌어 당겨 앉더니 연우가 말하기를 기다렸다.

“아.. 아 그게.. 교수님! 아차! 교수님은!?”

순간 연우는 자신이 교수님에게 달려 가야하는 긴급 상황을 인지하고 민혁 선배를 보며 외쳤다. 연우의 커다란 목소리에 깜짝 놀랐는지 민혁 선배가 앉아 있던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날카롭게 났다. 민혁 선배는 이내 의자를 바로 잡으며 연우에게 말하였다.

“응? 교수님은 금방 공항으로 가셨어. 세미나가 있다고 하셔서.”

연우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입이 썩 벌어지며 마음속으로 외쳤다.

‘교수님! 돌아오세요오오~!!’

종이를 짹 쥐어짜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연우를 보며 민혁 선배는 피식 웃었다. 연우는 순간 민혁 선배의 웃음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달래며 정수기로 다가갔다.

[주르르륵]

“선배는 커피 드실래요? 아니면...”

“난 녹차.”

연우는 커피를 드실 건지 물어보았지만 사실 지금은 녹차를 타고 있는 중이다. 옆친 데 덮친 격 커피가 떨어져서 없었던 것이었다. 다행히 민혁 선배는 망설임 없이 녹차를 달라고 하였다. 선배에게 녹차를 건네주고 연우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무슨 일로 연구실까지 오셨어요?”

“교수님이 당부하셨어. 너 잘 보살피라고. 쿡쿡. 앞으로도 자주 보게 될 것 같아서.”

연우는 물을 후루룩 마시다가 선배의 말을 듣고 놀라 이내 콜록거렸다. 그리고 기쁜 듯이 자리에 벌떡 일어나 외쳤다. 선배는 살짝 놀란 표정을 짓다가 이내 미소를 지었다.

“설마! 선배도 임시교사 추천 되신 거예요? 와아!”

“아.. 임시는 아니고 교사로 가는 거야.”

연우는 순간 임시가 아니라는 말에 머뭇거렸다. 자신은 임시 교사인데 어째서 선배는 임시가 아닌 교사로 발탁된 것일까 하며 생각을 했다. 연우는 이내 슬쩍 웃어 보이며 자리에 다시 앉았다. 한동안 정적이 흘렀다. 연구실은 시계가 똑딱 똑딱 움직이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순간 정적을 깬 것은 핸드폰 벨 소리였다. 선배는 핸드폰을 꺼내들고는 나중에 또 보자라는 말과 함께 연구실을 나가버렸다. 연우는 아직도 앞드려서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는 녹차를 바라보며 멍하니 있었다. 차갑고도 따뜻한 2월의 이야기이다.

[끼잉--- 치익]

우르르-

새 학기가 시작되고 어김없이 아이들이 버스에서 뛰engk 쏘아져 나온다. 오랜만의 만남인 아이들 또는 새로이 고등학교의 문을 두드린 아이들. 서로 알 듯 모를 듯 기웃거리며 걸어가는 아이들. 어느새 운동장은 푸른 교복들로 물들었다.

[스윽-]

아이들이 다 교실로 들어갔는지 운동장은 점점 텅텅 비어져 갔고 그런 상황을 지켜보는 누군가가 있었으니...

한 남자는 살며시 교문을 내다보며 들어갈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칙칙한 회색 코트에 딱딱해 보이는 검은 테 안경을 쓰고 기다란 줄을 늘어뜨린 가방을 맨 남자는 잘못 보면 답답하고 까칠해 보이는 판매상으로 보인다.

역시나 들어가려고 할 찰나 학교의 수위 아저씨가 냉큼 달려와 버럭 소리를 지른다.

깜짝 놀란 그는 뒷걸음질을 친다. 하지만 이내 수위 아저씨는 그의 얼굴을 보더니 고개를 내젓는다. 그의 얼굴을 이리 봐도 저리 봐도 고등학생으로 보였다. 스쳐보면 중학생으로도 보일 지경이다.

“어이. 학생. 교복이 없는고? 얼른 들어가. 쫓쫓. 조금 있으면 수업 시작해. 얼른~!”

그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말할 틈새도 없이 수위 아저씨는 뒷짐을 지으시며 다시 수위실로 들어가신다. 수위실로 들어가시고는 손짓으로 얼른 들어가라고 하신다. 그는 고개를 꾸벅 숙이며 인사를 하고 조심스럽게 교문 안으로 들어간다. 그는 교문 안으로 들어가자 눈물이 핑 돌았다. 처음 발 딛어 보는 고등학교. 넓고 넓은 운동장에 축구골대가 세워져 있고 한쪽에는 농구골대가 세워져 있다. 정면으로는 강당이 있었고 왼쪽 편으로는 교실들이 들어서 있는 본관과 오른쪽에는 식당 및 매점 체육관이 시설되어있었다. 감상도 잠시.

그는 누가 볼 새라 살금살금 걸어서 건물로 들어갔다. 다행이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차가운 대리석을 밟으며 1층의 교무실로 다가갔다.

마음을 가다듬는지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를 반복하며 교무실을 문을 잠을 찰나 뒤에서 누군가가 불러 세웠다.

“연우!”

그는 고개를 획 돌렸다. 그러자 눈앞에 있는 사람은 깔끔한 정장으로 차려입은 민혁 선배였다. 민혁은 연우의 모습을 보더니 ‘퐁’거리며 뒤로 돌아섰다.

“연우야. 왜 안 쓰던 안경을 쓰고 긴 코트까지...”

민혁은 허리춤에 팔을 얹고 한숨을 쉬었다. 연우는 민혁의 말에 머리를 굽적이며 자신의 모습을 힐끔 힐끔 쳐다보았다.

“이상해요? 웬지... 젊어 보이면 안 될 것 같아서 나이 들어 보이려고 이렇게 입은 건데... 역시나.. 이상한 거죠?”

“음...(나름 고민했나보군... 자신의 또래가 있는 학교이니 어린 티 안내려고 저랬나 보구나.) 다음부터 원래대로 입던 데로 입고와. 나이 들어 보이는데 애늙은이 같아. 아! 일단 들어가자. 늦겠어.”

민혁은 연우 앞을 스쳐 지나가더니 교무실 문을 두 번 두드리고 문을 열었다. 그러자 시선이 집중되고 교무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민혁이 들어오자 교무실 창가 끝에서 서류를 훑어보던 한 중년의 남자가 미소를 지었다. 흰칠한 키에 깔끔해 보이는 타입이었다. 그 남자의 탁자 앞에는 교장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꽤 젊은 교장이었던 것이다.

‘교장이 젊다고는 했지만 꽤 젊군.’

민혁은 꾸벅 인사하고 교장에게 다가갔다. 교장이 일어서자 모든 교사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 여러분 새로 오신 교사이지군요. 어서 오세요. 아... 그런데 임시교사 한분은?”

임시교사라는 말에 문 밖에 서있던 연우는 심장이 두근거렸다. 민혁이 뒤를 돌아보며 연우를 바라보았다. 민혁과 눈이 마주치자 연우는 더 긴장한 나머지 몸이 굳어 버렸다. 연우는 숨을 크게 내쉬 다음 교무실로 들어섰다. 교무실로 들어서자 교무실 안은 정적이 흘렀다. 문을 살며시 닫고 연우는 민혁의 곁으로 다가갔다. 교장선생님은 민혁과 연우를 교사들에게 소개를 시켜주었다.

“아. 아. 여러분. 이번에 새로 오신 이 민혁 교사와 란 연우 임시교사입니다. 자 각자 소개들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민혁입니다. 첫 교사 수업을 이 학교에서 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웅성. 웅성]

민혁이 인사를 하며 미소를 짓자 여교사들은 작은 환호성을 질렀다. 민혁은 머뭇거리고 있는 연우를 보며 연우의 팔을 팔꿈치로 툭툭 쳤다. 그제야 연우는 정신을 차리고 꾸벅 인사를 했다.

“아...안녕하세요. 란 연우라고 합니다. 최선을 다해 교사 생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우가 인사를 하자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작은 소리였지만 민감해진 연우는 소리 하나하나가 귀에 쪽쪽 잘 들어왔다.

‘어머! 17살이래. 저래서 교사를 할 수 있겠어?’

‘똑똑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잘하겠죠. 아 부럽다. 저 나이에 난 죽어라 공부만 했는데.’

‘아이들이 괜찮을까 걱정이네요. 웬지 안 좋을 것 같은데요?’

교장선생님의 기침 소리가 들리자 소리가 푹 끊겼다. 교장은 다시 말을 이었다.

“이민혁 교사는 3학년 국사를 담당하고 있는 김 선생에게 지도를 받게. 김 선생!”

교장이 김 선생이라고 부르자 저 구석쪽에서 빼거덕 거리는 의자소리와 함께 뚱뚱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옷은 단정하게 정장을 입었지만 꽤 끼어 보이는 듯 한 느낌이었다. 가운데에 잠겨 있는 단추는 금방이라도 튕겨져 나갈 것 같은 기세였다. 민혁은 연우에게 눈인사를 하고 김 선생과 함께 자리로 들어갔다. 혼자 남은 연우는 교장을 힐끔 쳐다보았다. 교장은 서류를 정리하면서 말했다.

“음.. 연우는 임시 교사이니. 일단 한 반의 담임을 도와 일을 해보도록 하게. 그 일이 익숙해지면 수업에도 참가 할 테니. 일단 부담임 역할도 해보게나. 최 선생!”

교장이 최 선생이라고 부르자 의자가 빼거덕 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연우는 살며시 고개를 들어 자신 앞에 다가선 신발을 바라보았다. 슬리퍼에 하얀 양말... 그리고 더 고개를 들어 얼굴이 마주쳤다.

초라하게 추리닝을 입고 몸을 굽적이고 있는 선생님. 하지만 모습과 반대로 외모는 수수하고 착하게 보이는... 여자 선생님이었다.

연우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미소를 지었다. 여자 선생님은 무뚝뚝한 표정으로 연우를 가까이 다가가 드러다 보더니 이내 고개를 들고 한마디 했다.

“짜증나는 타입이군.”

순간 교무실이 술렁거리고 연우는 순간 뒷걸음질을 쳤다. 교장과 모든 선생님들과 그 침착하던 민혁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놀라했다. 최 선생은 따라오라는 손짓과 함께 뒤도 안 돌아보고 걸어갔다. 연우는 후덜덜 거리는 몸을 겨우 지탱해 가며 따라갔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긴장을 한 나머지 침을 삼키는 소리가 꿀꺽 꿀꺽 콧가를 울려 대었다.



“난 최 홍일이라고 한다. 체육을 담당하고 있지. 자. 따라와.”

최 선생은 교무실을 나가 2층으로 걸어 올라갔다. 왜 2층으로 올라 가냐고 물어보지도 못하고 학생들이 불까봐 연우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올라갔다. 그런데 도착한 곳은 1학년 3반인 것이다. 교실 안에서는 선생님이 온줄 안전지 후다닥 거리는 소리가 들리다가 조용해 졌다. 최 선생은 문을 드르륵 열며 아이들을 향해 반갑게 인사를 했다.

“동작 봐라! 조회시간에 분명히 말했다. 이젠 중학생이 아니다. 행동을 똑바로 하도록 해. 누가 여기에 쓰레기를 버려놨어?! 에~휴! 자. 내가 없는 동안 반장은 뽑아 났겠지?”

문밖에 서있던 연우는 최 선생의 말투에 깜짝 놀라 들어가려다 우뚝 서버렸다. 들어오려다가

마는 연우의 행동을 봤는지 최 선생은 성큼 성큼 다가 왔다. 그리고는 연우의 등을 떠밀어 교실로 들어가게 했다. 순간 교실은 웅성거리다 최 선생이 들어오자 다시 조용해 졌다. 연우는 안절부절 못하며 교실 구석에서 서성였다. 최 선생은 앞문을 닫고 씨-익 웃었다.

“자! 부담임을 소개한다. 1학년 3반의 부담임을 맡게 된 란 연우 선생님입니다.”

순간 연우는 눈이 휘둥그레 졌다. 임시교사라는 말도 안 붙었다. 그리고 부담임이라고 소개 까지 해주었다. 최 선생님의 말에 연우는 자신감을 얻기 시작하였다. 연우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자신 있게 자기를 소개했다.

“안녕하세요. 1학년 3반 부 담임을 맡게 된 란 연우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최 선생님은 연우를 보며 학생들에게 한마디 했다.

“좀 짜증나는 타입이지만 괜찮은 선생님입니다. 훗. 그럼 난 교사 모임이 있으니 가 봐야 할 것 같으니 뒤는 부담임에게 맡깁니다.”

[툑. 툑]

최 선생님은 연우의 어깨를 툑툑 쳐주고는 냉큼 교실을 나가버렸다.

‘어.. 어찌라는 겁니까?! 최 선생니~임!~~~허어어억!!’

침을 꿀꺽 삼키며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한발... 두발.. 천천히 교탁에 발을 얹고 올라섰다.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좀처럼 진정되지가 않았다. 그런데 순간 달콤한 향기가 나더니 긴장이 풀어졌다.

[스으윽-]

의자가 밀리는 소리가 나더니 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선생님...? 어디 아프신 건가요?”

또랑또랑하고 포근한 목소리. 나는 살며시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그녀와 눈이 마주치고 말았다. 눈이 마주치자 말자 어릴 때의 추억이 떠오르는 연우...

어릴 때 한 소녀와의 소꿉장난. 분명 그때 그.. 소녀! 연우의 첫사랑이었다. 순간 연우는 몸에 열이 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당황한 연우는 말을 더듬기 시작한다.

“아.. 미..미.미안 합니다!. 몸이.. 좀.. 조..조.. 긴..긴장을 했나...”

소녀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다시 자리에 앉았다. 연우는 분필을 쥐어 잡고... 연우는 순간 당황했다. 분필이 없는 게 아닌가...연우는 이리저리 두리번거렸다. 그 모습이 웃겼던지 아이들은 하하 호호 웃기 시작했다.

“선생님. 그건 전자 칠판이에요. 터치인식이라 분필은 이제 안 써요. 푸훗-”

한 학생의 말에 칠판을 쳐다보았다. 흔히 보던 녹색칠판이 아닌 하얀 칠판... 손을 가져다 대보니 칠판에 손 따라 글이 써진다. 고등학교에 터치칠판이 있는지는 몰랐기 때문에 분필을 자연스럽게 찾은 거였는데 터치칠판이면 말이 달라진다. 연우는 항상 교수님이 써오던 칠판이라 자유스럽게 사용할 수 있었다. 연우는 칠판에 자신의 세 글자 이름을 적었다.

“휴... 제가 지금 긴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란 연우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많은 것을 서로 이해하고 배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엄청... 어려 보이시는데요?(웃은 좀 아니지만...)"

[웅성. 웅성]

한 남학생이 손을 들고 말했다. 그 순간 연우는 올 것이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모두들

나이에 대해 궁금했던지 귀를 쫓긋 세우며 연우를 바라보았다. 물론 첫사랑이었던... 그 소녀도. 주변에서는 벌써부터 속닥속닥 거리며 자신만의 추측을 하기 시작한다.

성장 판이 멈춘 것이 아닐까?

동안이 아닐까? 관리만 잘하면 애기 피부 유지 한다잖아.

그 TV에서 보면 희귀병으로 성장 멈추는 사람도 있다고 하잖아. 그런 거 같지 않아?

연우는 점점 자신에 대해 이상하게 평가되기 시작하자 조금 마음이 불편해졌다. 남의 겉모습만으로 자신들의 추측을 만들어 내뿜는다. 더구나.. 다 들린다..

“흠흠... 전 보이는 그대로입니다. 여러분처럼 아직 어리고 밖에서 한참 뛰어놀 나이죠. 하지만 이 자리에 선생으로서 서있습니다. 제 나이는 열일곱. 여러분과 같은 나이입니다.”

[웅성! 웅성!]

역시 반응은 좋지 않았다. 모두들 무언가를 잘 못 본 듯한 표정으로 연우를 바라보았다. 곧 모두는 웅성거리며 헐뜯기 바빴다.

“에이! 뭐야??! 이거 혹시 몰래카메라 같은 건가? 말도 안 돼. 17살이 어떻게 선생이 되냐?”

한 남학생이 외치자 나머지도 덩달아 말하기 시작하였다. 모두들 서로 마주보며 웅성거렸다. 연우는 한숨을 쉬며 이럴 줄 알았다는 듯이 씩씩한 미소를 지었다.

“맞아! 몰래카메라 같아! 말이 안 되잖아.”

모두들 불평 있는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명이 말했다.

“그런데... 소수이기는 하지만... 외국에서든 한국에서든 어린사람이 대학을 가고 하잖아? 그런 경우...가 아..아닐까?”

의외였다. 연우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누가 말했는지는 알 수 없었다. 교실에서 맴도는 그 소리를 듣더니 이번엔 더 반발이 심해졌다.

“그럼 천재라는 거야? 뭐야?! 지금 우리보고 동갑내기한테 배우라는 거야? 누군 천재가 안 되고 싶어서 이러냐?”

연우는 말문이 막혔다. 연우는 주먹을 불끈 쥐고 마음속으로 반문을 했다.

‘누가 천재가 되고 싶었냐? 그리고 천재가 아니라 영재다....’

“교장선생님도 문제가 있어! 우리한테 뭘 바라시는 거야? 같은 또래에게서 경쟁심이라도 일으키라고 그러시는 거야?”

‘누가 경쟁하래?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난 그저 선생님이 되고 싶을 뿐이야. 내 꿈을 조금 더 일찍 실행한 것뿐인데 왜 나를 가지고... 그러는 거야.’

반은 점점 작은 소리에서 큰 소리로 울려 퍼지고 있었다. 연우의 몸은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그때였다. 드르륵 소리와 함께 떠들던 학생들의 목소리가 사라져 버렸다. 문에는 선생님이 인상 찌푸린 얼굴로 서 있었다.

연우는 학생들의 말소리가 끊기자 안심을 하고 최 선생님이 구세주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그것도 한순간. 최 선생은 학생들이 아닌 연우에게 소리쳤다.

“란 선생님! 어째서 애들이 이렇게 떠들고 있습니까? 교무실까지 다 울려 퍼집니다! 아십니까? 어떻게 지도를 했기에 아이들이 이렇게습니까?!”

우렁찬 최 선생의 목소리에 연우는 겁에 질려버렸다. 아이들도 마찬가지로였다. 최 선생은 곧 연우에게 따라오라는 손짓과 함께 밖으로 나가버렸다. 연우는 몸을 주춤하다가 얼른 최 선생의 뒤를 따랐다. 학생들의 불평을 듣느니 차라리 따끔한 훈계를 듣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최 선생은 복도를 한참 걷다가 휴게실로 들어갔다. 그 곳에는 매점과 함께 편하게 쉴 수 있는 알록달록 의자와 탁자가 여러 개 놓여 있었다. 최 선생은 자리에 앉으라고 권하고는 어디론가 갔다. 연우는 손가락지를 끼며 꼼지락거렸다. 차마 고개는 들 수 없었다. 그 순간 차가운 무언가가 볼을 스쳐지나갔다. 깜짝 놀란 연우는 고개를 들었다. 눈앞에는 시원하게 생긴 음료수가 흔들 흔들거리고 있었다.

연우는 최 선생이 건네 준 음료를 받았다. 탁 소리와 함께 시원한 소리가 들려왔다.

[꿀꺽. 꿀꺽]

시원한 음료를 마시니 막혔던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다. 음료를 마시다가 문득 수업시간도 안 끝났는데 나와 버린 상황이 뇌리를 스쳐지나갔다. 최 선생은 연우가 무슨 말을 할지 아는 건지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은 모든 것이 첫 수업이니 괜찮아. 익숙해 질 거야. 아직 더 배워야 할 나이잖니.”

“저랑.. 같은 나이인데요...”

“이게! 말대꾸네?! 엄연히 난 직장 선배다. 너보다 앞서 들어온 4년차 선생이란 말이다. 알겠어? 내가 봐도 넌 짜증나거든.”

순간 연우는 들고 있던 음료를 떨어뜨릴 뻔했다. 솔직한 건지... 남을 안 좋게 보는 성격인 건지는 몰라도 연우는 상처받고 있었다.

“웃 좀 제대로 입어봐. 그게 뭐니? 촌스럽게. 안경도 너 도수 없는 거지? 그렇게 푹푹해 보이고 싶니?”

“아..아니요. 그..그냥.. 나이 들어 보이려고.. 했을 뿐인데.”

[푸-윽-]

순간 연우는 눈을 찔끔 감았다. 점점 얼굴을 적셔오는 차갑고 끈적끈적한 음료가 느껴졌다. 최 선생은 연우에게 휴지를 건네주면서 계속 웃어대었다.

“푸하하핫! 나이를 ㅋㅋ. 들어보이게 푸웃-! 너무 웃긴다! ㅋㅋㅋ.”

최 선생은 계속 웃으며 휴지를 건네주었지만 이제는 휴지도 필요 없었다. 음료수이다 보니 휴지가 오히려 얼굴에 달라붙기 시작했다. 연우는 휴게실에 있는 화장실로 걸어갔다. 뒤에서는 계속 최 선생의 웃음이 울려 퍼졌다.

[좌아악-]

물이 시원스럽게 소리를 내며 나온다. 끈적끈적한 물기를 닦아 가며 연우는 한숨을 쉬었다

‘선생님이든 학생이든 나는 웃음거리가 된다. 내 꿈인데... 이를 수 없는 것일까. 아직 시작도 안 해보고 주저앉아야만 하는 가’

옷에 있는 얼룩은 대강 지우고 휴지로 얼굴을 닦은 뒤 화장실을 나갔다. 벌써 쉬는 시간인지 매점에는 아이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고 있었다. 웬지 연우는 학생들이 자기를 보고 비웃을까봐 살며시 매점을 나갔다. 학생들이 매점에 들어와서 그런지 최 선생은 밖에서 주변을 둘러보며 서성이고 있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열심히 해봅시다.”

최 선생은 기지개를 피며 외쳤다. 연우는 그런 당당한 최 선생님을 보자 갑갑했던 마음이 살며시 녹는 듯한 느낌이었다. 연우는 살짝 주먹을 불끈 쥐고 당당하게 자신의 꿈에 대해 용기를 내리라 다짐을 했다.

‘란 연우! 난 할 수 있다! 파이팅!’

하늘을 향해 당당히 고개를 드는 연우였다.

어제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조금 이른 시간이 집을 나섰다. 어제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 평상시 입던 것처럼 셔츠를 단정하게 입고 따뜻하게 외투를 걸쳤다. 도수가 없는 안경은 고이 접어 탁상에 올려두고 깔끔하게 머리도 정리했다. 밖에 나오니 아직 해가 산 너머 고개를 내밀려 하고 있었다.

교문에 도착하자 수위아저씨가 주변을 정리하고 있었다. 연우의 첫 인상이 깊게 남았던지 수위아저씨는 보자마자 웃으시면서 맞아주셨다.

“오늘도 왜 사복인 게냐? 오늘은 좀 단정하구나. 허허.”

“아...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임시교사로 발탁된 란 연우라고 합니다.”

연우는 힘차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다. 수위아저씨는 조금 당황한 표정이었다. 연우는 역시나...라는 표정으로 씩씩한 미소를 지었다. 그런 표정을 들켰는지 수위아저씨는 이내 웃으면서 악수를 청했다. 손이 자신 앞으로 다가오자 연우는 멍한 표정을 지었다.

“잘 부탁하네. 란 선생. 난 비록 수위이지만 자네 보다 선배라네~ 허허허!”

“네! 물론이죠! 잘 부탁드립니다. 혹시 도와드릴 일 없을까요? 너무 이른 시간이라 교무실에 혼자 들어가 있기도 좀 그렇고...”

수위아저씨는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연우에게 빗자루 한 자루를 쥐어주셨다. 수위아저씨는 교문 앞을 쓸기 시작하였다. 연우도 반대편 쪽으로 가서 휴먼지를 날려가며 쓸기 시작하였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모래들 때문에 바닥이 질퍽거려진다고 항상 아침마다 쓰신다고 한다. 열심히 시간가는 줄 모르고 수위아저씨를 돕다가 자동차가 한두 대씩 들어가기 시작하였다. 얼핏 보니 선생님들이 출근하신 듯하였다. 곧 차 한 대가 더 들어오더니 최 선생의 차였다.

[끼이익-]

“어머. 란 선생. 지금 뭐하는 거야? 오늘 아침 회의 있어. 얼른 교무실로 가. 수위아저씨~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도 힘내세요.~”

최 선생은 차의 창문을 내리며 외쳤다. 수위아저씨는 흐뭇한 표정을 지으셨다. 연우는 수위아저씨에게 꾸벅 인사를 한 뒤 허겁지겁 교무실로 달려갔다. 그런 모습을 보는 수위아저씨와 최 선생님은 피식 웃었다.

“올해는 특이한 선생님이 오셨군요.”

“후훗. 그렇죠? 그래서 즐겁다니까요.”

.
. .
.

‘란...’

‘란.... 란선생...’

“란 선생!!!!”

연우는 순간 귓가에 울리는 소리에 놀라 벌떡 일어났다. 옆을 바라보자 콧김을 썩썩 내뿜으며 팔짱을 끼고 서있는 최 선생이 서있었다.

“란 선생! 팔자 좋습니다. 점심시간이라고는 하지만 졸고 있으면 어쩍니까?!”

“아.. 죄송합니다.”

연우는 얼굴이 화끈 달아 올랐다. 점심을 먹고 나니 졸음이 쏟아져서 자신도 모르게 졸아 버린 것이었다. 더구나 최 선생이 계속 불러도 안 깨어났으니 화가 날만했다.

“자! 할 일 없죠? 그럼 저를 도우도록 하세요! 따라와요!”

최 선생은 차가운 공기를 내뿜으며 교무실을 나갔다. 연우는 얼른 눈을 비비고 최 선생을 따라 나갔다. 주위의 선생님들은 힐끔 쳐다보기만 하고 다시 자신만의 일에 집중했다.

최 선생을 따라 도착한 곳은 체육관이었다. 체육관은 텅굴 거리는 공들로 바닥이 채워져 있었다. 체육관을 잘 안 치웠는지 신발자국들이 찍혀져 있었다.

“오늘은 여기를 치우는 걸 돕도록 해요. 연습을 하던 학생들이 오늘 대회가 있어 나갔거든요? 치우는 것이 어렵지 않잖아요? 좀 부탁해요. 점심시간 끝나면 1학년들 체육수업이 있으니까 그전까지 부탁드려요. 한 40분정도 남은 것 같은데 괜찮죠? 전 바닥을 닦을 대걸레를 들고 올 테니 공 좀 주워서 통 안에 넣어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연우는 재빠르게 공을 줍기 시작했다. 배구공, 농구공, 심지어 탁구공까지. 같은 공끼리 통에 따라 담아 갔다. 마음이 너무 급했는지 연우는 공에 미끄러져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고 말았다. 하지만 아픔도 잠시 최 선생이 오기 전에 치워야 혼이 나지 않을 것 같은 기분에 다시 공들을 줍기 시작했다. 공을 다 주워 갈 때 쯤 최 선생이 도착했다.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대걸레를 나누어 들고 체육관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뽀득 뽀득]

“와~ 끝! 수고했어요. 란 선생. 역시 남자가 있으니 든든하네! 나 혼자 하기엔 무리거든..”

깨끗해진 바닥을 보며 최 선생이 빙그레 웃었다. 연우도 덩달아 미소를 지었다.

“최 선생님! 힘든 일이 있으시면 바로 말해 주세요. 많이 도와 드릴게요.”

“당연하지. 또 시킬게 있으니 걱정 마. 호호호~”

순간 연우는 자신을 잡아먹을 듯이 웃고 있는 마녀를 보고 말았다. 그 말이 있는 후 연우의 수난시대가 시작되었다.

- 체육시간에 공보이가 되어 공 주우러 다니기. 가끔 최 선생이 고의로 던지는 공에 정통으로 맞아 기절.
- 산더미처럼 쌓인 문서들을 나르기
- 도서실 책 정리하기.

겨우 일이 끝나고 자리에 앉게 된 연우. 최 선생의 수업이 있어 간 것 이었다. 그런데 다른 선생님들도 다 수업이 있는지 교무실은 텅텅 비어 있었다. 홀로 남은 연우. 연우는 교무실 안을 걸어 다니며 다른 선생님들의 자리를 구경하기 시작했다. 책으로 뒤덮인 자리, 깔끔하게 정리된 자리, 온통 꽃으로 꾸며진 예쁜 자리, 민혁 선배의 자리는 아직까지 선물 공세가 펼쳐지고 있었다. 아마.. 제일 궁금한 자리라고 한다면 교장선생님의 자리일 것이다.

“하하하하-”

아무도 없으니 간이 커질 대로 커진 연우. 아무도 없으니 크게 웃기까지 한다. 과감하게 교장선생님의 자리를 구경하기 시작한다. 차곡차곡 쌓여 있는 문서들과 다양한 책들. 무슨 책일까 궁금해서 보려는 순간 교무실의 문이 벌컥 하고 열렸다. 책을 들다가 놀란 연우는 그만 책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아까전의 웃음소리가 결국 사건의 시작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밖에서 순찰을 돌고 있던 경비 아저씨가 교무실로 들어 온 것이었다. 지금 이 시간 때는 모두 교무실을 비우는 시간 때라 경비 아저씨가 주변을 돌며 경비하는데 하필 교무실에서 연우가 크게 웃은 것이었다.

“학생! 거기서 뭐하는 건가! 거기 꼼짝 말게!”

“아.. 아니요! 그.. 그게 오해예요.”

하필이면 아침에 봤던 경비아저씨와는 다른 아저씨였다. 오해를 받게 생긴 연우는 손을 내저으며 강하게 아니라고 외치지만 경비아저씨는 들은 척 만 척 살금살금 연우 곁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한다.

“경비아저씨. 저 교사라니깐요. 제발 믿어주세요!”

“무슨 헛소리야?! 아무리 내가 나이를 많이 먹었지만은 그런 것을 구별 못하는 나이는 아니야! 이게 어린 것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못할망정 감히 나를 속으려해?!”

경비아저씨는 화가 났는지 무서운 얼굴로 재빠르게 다가오더니 연우의 손을 덥석 잡았다. 그리고 질질 끌려 나가는 연우. 연우는 몸을 버둥거리며 저항을 한다.

“경비아저씨! 저 정말 교사라니까요. 이번에 새로 들어온 란 연우라고 (으... 듣지를 않으신다.)”

경비 아저씨와 험난한 혈투를 벌이는 연우. 그 순간 이게 웬일인가. 하얀 천사가 연우의 눈 앞에 나타난 것이다.

“저기...”

연우의 첫 사랑. 그 소녀... 신. 예. 미... 예미는 놀란 눈으로 저항하고 있는 연우와 필사적으로 끌고 가려난 수위아저씨를 바라보고 있었다. 예미의 등장에 힘이 빠진 연우는 수위아저씨의 힘에 의해 목덜미가 잡혀 벌떡 일어났다.

“선생님.. 뭐.. 하세요?”

예미의 달콤한 목소리에 연우는 얼굴이 빨게졌다.

“아.. 아. 그.. 그제...”

하지만 그 둘 보다 놀란 건 수위아저씨였다. 수위 아저씨는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이 조그마한 학생이 정말 선생님이었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수위 아저씨는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교무실을 휙 나가버렸다. 순간 정적이 흘렀고 연우와 예미는 서로 바라보고만 있었다. 예미는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다.

“선생님. 좀 도와주시겠어요? 담임선생님이 미술선생님 대신 들어오셨는데... 미술도구가 필요하다고 해서요.”

“으..응? (담임선생님이라면... 최 선생님이신가. 럭키! 최 선생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아! 내가 도울 일이라면 언제든지.”

·
·
·

‘라고는 했지만 최 선생님 너무하셨습니다.’

연우는 미술실에서 포즈를 잡고 모델이 되는 미술도구가 되고 말았다.

예미가 보는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자니 혼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최 선생은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뒤에서 혼자 웃고 있었다. 배를 잡으며... 뭐 다른 방향을 본다면 학생들은 진지하게 수업에 임하고 있다.



수업이 끝나자 팔이 저려오는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 연우는 기분이 좋았다. 미술시간에 끝낸 미술작품들을

예미와 함께 들고 교무실로 향하는 중이었기 때문이었다. 연우는 고민을 했다. 자신과 소꿉 친구였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이 시점에 말해도 되는 걸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을 휘젓고 있었다. 그것도 순간이었다. 교무실에 금세 도착해버려서 말도 붙이기커녕 마주 보지도 못했다.

“고...”

“란 선생! 빨리와봐!”

연우는 고맙다는 말을 예미에게 하려는 순간 저 멀리서 최 선생이 다급하게 불렀다. 연우는 미술작품들을 얼른 미술 선생님의 자리에 놓고 예미에게 꾸벅 인사만 한 채 최 선생에게 달려갔다. 최 선생은 연우가 달려오자 또 다른 일을 시키려고 했다.

이 일 저 일을 사소한 것에서부터 큰 문제까지 최 선생은 하루 동안 계속 연우에게 일을 시켰다. 다른 선생님들과 교장선생은 그런 연우를 대단하다는 듯이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일이 줄어들진 않았다. 여기저기서

“란 성생~!”

하고 부르면 연우는 어디서든 지간에 대답을 하며 달려갔다.

“네~”

지칠 줄 모르는 연우. 시키는 것을 멈출 줄 모르는 최 선생. 교무실에 있는 모든 이들은 그 둘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있었다. 최 선생이 조금 다루기 힘든 타입이라 나서는 이들이 없었다. 민혁이 나서려 했지만 주위의 선생님들이 말렸다. 괜히 나섰다가는 불똥이 튈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오히려 란 선생을 위해 나서지 않는 다는 듯이 선생님들은 고개를 내저었다.

“란~선생~”

“네...”

또 무엇을 시킬지 조금 지친 연우는 땀을 닦으며 최 선생을 바라보았다. 최 선생은 방긋 웃으며 말했다.

“고생했어. 오늘은 끝~”

최 선생의 말이 끝나자마자 모두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교장선생님 조차 땀이 났는지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고 있었다.

“수고하셨습니다. 란 선생님”

“이제 퇴근하겠네요? 쿡.”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뭉까지 다해버리셔서.”

연우는 자신에게 다가와 말을 붙이는 다른 선생님들의 행동에 눈이 휘둥그레 졌다.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분은 좋았다. 연우는 빙그레 웃으며 미소로 답하였다.

모두 퇴근 할 준비를 마치고 하나 둘씩 교무실을 빠져 나갔다. 연우도 가방을 정리하고 나갈려는 찰나. 최 선생이 말했다.

“내일 또 부탁해. 란.선.생~”

과연.., 최 선생의 심부름은 언제 끝날 것인가...

제 4 화

인기 좋은 남자.

누군가가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운동장을 걷고 있다.

날씨는 꽤 싸늘하지만 등에는 땀이 맺혀있는 것이 보인다. 더욱 신기한건 이른 아침에 하나둘씩 여학생들이 등교하기 시작한다. 시험기간도 아니고 특별한 날도 아니었다. 여학생들은 일제히 창가나 운동장에 있는 벤치에 앉아 홀로 운동장을 돌고 있는 그 사람을 주시한다. 여학생들의 입가에는 미소가 지어져 있다. 한참을 보고 있는데 운동장을 돌던 사람이 운동을 끝내고 물을 별켜 별켜 들이 마시고 있다. 해가 뜨기 시작했고 그 사람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는 바로 이.민혁. 그의 나이 28세. 직업: 고등학교 교사. 남부럽지 않은 성격과 외모를 지닌 그는 학교에서 인기가 많은 남선생이었다. 어느 때부터인가 그는 운동을 시작했고 출근이

늦지 않게 학교에서 몇 바퀴 돈 다음 체육 생들이 이용하는 샤워실에서 씻고 수업에 임하게 된다. 그런 모습이 한 폭의 그림처럼 느껴지는 사춘기의 여학생들은 반할 수밖에 없었었다. 교장선생님은 이유가 어찌 되었든 간에 아이들이 일찍 학교에 찾아와 수업올도 늘고 지각생도 줄어 호뭇해하신다.

민혁이 등장하면 교무실도 술렁거린다. 거의 3/1이 여선생님으로 되어 있어서 미혼이든 기혼이든 눈이 즐겁기 마련이다. 체구도 건장하고 젊은 혈기가 넘쳐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예외도 있었으니...

“오늘은 안 늦었네? 호호호~ 오늘도 열심히 해. 란선생~”

“넵! 최선생님!”

바로... 최선생.

교무실에 도착하면 항상 동생 같은 연우를 챙기는 최선생. 민혁은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 담당수업을 마치고 항상 교무실에 오면 티격태격 싸우거나 일에 대해 의논하는 둘의 모습만 보였다. 그런데 항상 그 둘 사이에 끼여 있게 되는 건 바로 민혁. 원래 초기에는 연우가 의지하는 상대는 민혁이었지만 최 선생의 활약으로 연우는 조금 당당하게 나서게 되었다. 그렇다 보니 어정쩡하게 가운데 끼어서 그 둘의 이야기를 듣고만 있는 신세가 되어 버린 것이다. 항상 고민이 있어 민혁에게 상담하러 온 연우는 갑자기 등장하여 그 둘 사이에 끼인 최 선생에게 의논하기가 일쑤였다.

한교시가 지날 때마다 교무실은 연우와 최 선생의 티격태격 싸움이 일기 일쑤였다. 항상 잡일과 노동을 시키는 최 선생은 연우를 혹사하는 것처럼 밖에 안 보인다. 민혁은 그럴 때마다 나서서 막고 싶었지만 연우라는 녀석은 항상 웃으며 그 일을 꾀꾀이 하는 것이다. 계속보고 있자니 민혁은 조금 화가 나기도 했다. 아무리 어린 연우라지만 너무 부려먹고 있기 때문이다. 민혁은 무표정을 지으며 그 둘을 바라보고 있었다. 주변에 있는 여 선생님들은 그런 고심에 빠진 민혁을 멋지게 보며 분홍빛 하트를 내뿜고 있었다.

“자자! 선생님들! 오늘 단합 대회 있는 것 아시죠?”

3학년을 맡고 있는 체육선생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민혁은 아차!하며 체육선생을 바라보았다. 체육선생에게 시선들이 모두 고정하자 다시 입을 열었다.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이맘때쯤 몸도 풀고 단합도 해보는 게 좋잖아요? 오늘 6시30분부터 단합 피구! 대회를 하겠습니다. 학생들 지도하느라 힘들었던 것 모두 스트레스 날려 보내시고~ 한번 해봅시다!”

[웅성. 웅성]

“그럼 편은 어떻게 나눌까요? 까~전 젊은 피가 끓는 민혁선생 편으로 할래요.”

같은 1학년을 맡고 있는 국어 여선생님이 몸을 비비꼬며 말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편을 민혁선생과 할 거라면서 아우성을 쳤다.

“아아~ 진정들 하시고. 공정하게 제비뽑기입니다. 자 여기 종이 있습니다. 하나씩들 뽑아주세요.”

선생님들은 일제히 우르르 뛰어나와 종이를 뽑아들었다. 민혁은 집어든 종이를 펼쳐보았다. 그런데 자신이 보기도 전에 뒤에서 배꼽 내다보고 있던 여 선생이 폴짝폴짝 뛰며 외쳤다.

“까악~ 민혁선생! 같은 조야! A조 만세~”

그러자 주변에 있던 A를 들고 있던 선생님들이 환호를 했다. 그리고 민혁에게 다가오는 또 다른 한사람. 바로 최 선생이었다. 혹시 같은 편인가? 민혁은 멍하니 최 선생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최 선생은 민혁을 보더니 사악하게 씨익 웃었다.

“호호호. 적이군! 내가 이길 테니 무리하지 말라구~ 민혁선생.”

민혁은 순간 표정이 굳어버렸다. 최 선생이 선전포고를 한 것 이었다. 그리고 그 둘에게 다가 오는 연우. 연우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혹시 최 선생과 같은 편인가? 민혁은 뚫어져라 연우를 쳐다보았다. 연우는 민혁의 시선에 주춤하다가 말했다.

“민혁선배. 같은편. 같.. 같은편.”

연우는 A조를 뽑았던 것이었다. 민혁은 표현하지 않았지만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최 선생은 연우와 민혁을 둘러보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드디어! 방과 후가 되자 선생님들은 체육관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몸을 풀며 있는 최선생. 담당이 체육이다 보니 유연한 몸과 튼튼한 체력이 있었다.

[뽕뽕-]

“자 제비뽑기 한 팀으로 서주세요. 그럼 몸을 5분 동안 풀고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은 일제히 피구에 맞게 설치한 경기장으로 들어왔다. 민혁은 여유 만만한 최 선생을 바라보았다. 최 선생은 미소를 지으며 민혁을 바라보았다. 연우는 피구를 해본 적이 없어서 민혁의 등 뒤에 살며시 숨어 으르렁 거리고 있는 최 선생을 바라보고 있었다.

“시합개시!”

[뽕-]

후루라기 소리가 들리자마자 심판 역할을 하는 3학년 체육선생님이 높이 공을 들어올렸다. 공을 먼저 잡는 자가 승리의 열쇠를 거머쥔다. 순간 연우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높이 뜬 민혁과 최 선생을 보며 순간 피구가 아닌 농구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든 것이다. 높이는 비슷 했지만 최 선생보다 키가 큰 민혁이 먼저 공을 차지했다. 공을 잡자 모두들 환호성을 지렸다.

“와아~ 민혁선생 멋져요!”

“아! 반할 것 같아! 멋져!”

민혁은 순간 힘이 짝 빠졌다. 자신의 편에는 다들 여선생. 물론 피구에 관심 없는 자들뿐이었다. 단 열심히 노력하려는 자는 연우뿐이었다. 연우는 눈에 불을 키며 공을 뚫어져라 보고 있었다. 그런 모습에 민혁은 피식 웃음이 나왔다. 공에 따라 시선이 고정된 연우가 웃겼기 때문이었다. 민혁은 정신을 차리고 공을 상대방에게 세차게 날렸다. 그러자 탕 소리와 함께 한명이 아웃되었다. 공이 다시 민혁에게 날아오고 또 다시 던졌다. 또 아웃이 되었다. 아웃이 될 때마다 모두 폴짝 뛰며 기뻐했다. 그런데 순간 탕 소리가 났다. 민혁의 머리카락을 스치며 날카롭게 지나가는 피구공. 순간 뒤에서 까악 소리가 들렸다. 그러고 보니 이번 공을 최 선생이 낚아 채어간 것이었다. 공이 그렇게 소름끼치고 날카롭게 날아갈 줄 몰랐다. 하지만 다행히 맞은 여선생은 아프지는 않은 것 같았다. 민혁은 꿀꺽 침을 삼키며 공을 유심히 보았다. 그런데 최 선생은 민혁이 아닌 주변의 여선생들을 향해 공을 던졌다. 하나둘씩 아웃되고 A팀에 마지막 남은 여선생이 온 몸을 받쳐 공을 사수하고 아웃이 되었다.

“휴.. 고맙습니다.”

“꼭 이기세요! 민혁선생만 믿어영~”

모두들 숨을 죽이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보기로 했다. 민혁은 일단 강력한 최선생 외의 선생님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팡-]

“꾸에에엑-”

[팡-!]

“아오~”

하나둘씩 쓰러지는 B팀의 선생님. 결국 남은 건 최 선생님 뿐이었다!

연우는 의외로 이리저리 공만 보다보니 용케 살아남은 것 같았다. 최선생은 공을 튕기면서 미소를 지었다. 높이 점프하는 최선생! 순간 막대한 오오라가 풍기는 듯한 무서움에 민혁은 뒷걸음질을 쳤다.

“불꽃토네이도!!”

라고 외치는 최 선생. 날카로운 바람소리를 내뿜으며 날아오는 공. 민혁은 발이 굳은 듯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팡-----!]



커다란 굉음과 함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순간 민혁이 옆에 도망가고 있던 연우를 잡고 공을 막은 것이다. 공을 던진 최 선생도 순간 자신이 무슨 일을 벌였는지 알게 된 민혁도 놀랐다. 연우는 비틀거리며 헤롱거리는 표정으로 경기장을 나갔다. 다행히 방패로 막는 것은 최 선생님만 본 것 같았다. 주변의 선생님들과 직접 맞은 연우조차 연우가 대신 맞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다.

“와~ 연우선생! 멋져! 민혁선생을 위해 몸을 받치다니! 다시 보게 되었는데?”

“헤헤헤.. 저 멋있죠? 헤롱..헤롱.. 조금 어지러워영~”

민혁은 머리를 긁적이며 최 선생을 바라보았다. 최 선생은 인상을 찌푸리면서 공을 톱툰 두르고 있었다.

“민혁 선생. 이게 마지막 이야! 에잇! 초초초! 특급 불꽃 토네이도오--!”

“어..엿! 최 선생님. 잠시만요. 전 아직 준..준비가!! 엿!”

민혁은 순간 번쩍 하늘이 노래지더니 쿵 소리를 내며 뺏어버렸다.

[포르르르르-]

공은 바닥을 구르며 심판 앞에 도착했다. 그 순간 뽁 소리와 함께 경기를 끝내는 소리가 들렸다.

민혁은 집에 돌아가는 길... 연우를 차에 태우고 집으로 향했다. 그런데 계속 공을 던질대 무시무시하고도 웃긴 최 선생의 표정과 행동에 웃음이 계속 흘러나왔다. 계속 웃어대는 민혁을 보는 연우는 머리를 긁적였다.

“선배? 왜 웃어요?”

“큭.. 아니야. 그냥..풋..”

“에이 선배! 왜 그러세요? 좋은 일이 있으면 저한테도 말씀해 주세요!”

“아니라니깐~ ㅋㅋ.. 푸웃...”

연우는 궁금해서 계속 물어보았지만 민혁은 계속 아니라며 웃기만 했다. 민혁은 최 선생에게 호감을 가지기 시작했던 것이었다.

다음날. 연우는 어김없이 지각을 간신히 모면하며 교무실로 들어왔다. 그런데 교무실에 들어오자마자 놀란 일이 있었으니! 민혁과 최 선생이 티격태격 싸우고 있었던 것이었다. 연우가 오자 최 선생은 연우에게 무언가를 말하려고 했다. 그런데 민혁이 최 선생을 막아섰다. 민혁은 웃으면서 말하고 최 선생도 살짝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하지만 연우의 눈에는 싸움으로 보였다....

제 5 화

첫 수업.

오늘도 새로운 마음으로 출근을 하는 연우. 출근이라 보기엔 그는 학교에 등교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우는 수위아저씨와 인사를 나누고 교무실을 향한다. 교무실을 향하는 동안 연우를 보는 눈은 항상 많았다. 매일 아침마다 나타나 자신의 또래의 누군가가 사복차림을 하며 교무실로 들어가지 않을까. 학교에서 몇몇이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건지를 앓나 아직까지 연우의 존재에 대해 아는 이는 별로 없었다. 오늘도 최 선생님이 주시는 잡일을 처리하며 어떻게 해야 시간을 잘 쓰고 알차게 보낼까 생각을 하며 책상을 정리했다.

“란선생!”

순간 연우는 놀라서 벌떡 일어났다.

“넹!”

최 선생인줄 알고 놀라서 일어났는데 다름 아닌 교장선생님이셨다. 얼굴은 굳은 얼굴이라

혹시나 또 잘못된 일이 있나 싶어 조심스럽게 교장선생님께 다가갔다. 교장선생님은 주변의 선생님들을 보시더니 살며시 미소를 지으셨다.

“여러 선생님들과 합의 결과. 너에게 정식 수업을 맡기로 했다.”

“네?”

연우는 잘못 들었다는 되물었다. 교장선생님은 다시 또박또박 말씀해 주셨다.

“오늘부터. 수업을 하시게나.”

교장선생님의 말씀에 연우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하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귀까지 걸릴 정도였다. 모든 선생님들이 환호를 해주며 교무실은 박수갈채로 울려 퍼졌다.

기쁜 소식을 듣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온 연우. 그런데 기쁜 마음을 가라앉히기도 전에 최 선생님이 다가왔다. 표정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았다. 무언가 아픈 듯한 최 선생님.

“연우. 미안한데...”

“네? 최 선생님? 왜 그러세요? 아프세요?”

“쉬잇.. 조용히 말해. 응. 그래서 그런데 나대신 1교시 수업 좀 들어가면 안 될까? 체육이라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아프시다면 저야 도와 드려야줘! 알겠어요. 맡기세요!”

최 선생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연우는 자신의 첫 수업이 다가오자 자신감에 부풀러 콧김을 내뿜었다. 체육복으로 갈아입고 체육관에 가자 다행히 자신의 반의 학생들의 수업이었다. 더욱더 다행인 듯 한 느낌에 미소를 지었다.

“반갑습니다. 오늘 1교시는 최 선생님 대신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체육 과목은 제 담당이 아니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것을 할 차례인가요?”

“배구.”

짧고 간결한 한마디에 연우는 썰렁함을 느꼈다. 하지만 분위기에 굴하지 않고 다시 진행하기 시작했다. 더구나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되는 이유가 첫사랑이 눈앞에 있기 때문이었다.

“아.. 배구예요?(어떻게 하지 해본 적이 없는데...본 적은 있지만..)”

“같이해요. 란. 선생.님.”

한 남학생이 공을 튀기며 연우를 노려보았다. 연우가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이었다. 연우는 살짝 뒷걸음질을 치며 말했다.

“아. 배구를 잘 안 해봐서. 잘 되려나 모르겠네. 미안.”

“괜찮아요. 제가 가르쳐 드리죠.”

어떻게 하다 보니 1대 1 매치가 되어버린 연우. 더구나 학생에게 가르침을 받는 선생님이라니.. 최 선생님이 안 계시길 망정이지 연우는 한숨을 내쉬었다.

“음.. 배구를 잘하나봐?”

“배구부니까요. 아직 신입이지만 중학교 때부터 했었거든요.”

[꿀꺽]

연우는 침을 삼키며 땀을 흘렸다. 도움을 구하려고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각자 이야기하며 놀기에 바빴다. 그 순간이었다. 연우가 다른 곳에 시선을 돌리는 순간 남학생은 높이 공을 쳐 올렸다.

“자! 그럼 잡나닷!”

남학생은 높이 뛰어오르면서 강 스파이크를 날렸다. 연우의 눈은 공을 보고 있었지만 몸은 좀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다.

[팡-]

연우는 놀랐다. 자신은 하나도 아프지 않았다. 그런데 순간 자신 앞에서 쓰러지는 여학생 있었다. 모두들 놀라며 모여들었다.

여학생에게 타격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몰라도 기절한 상태였다. 연우는 자신에게 날아오는 공을 대신 맞아 쓰러진 여학생을 들쳐 었었다.

“난 이 애를 데리고 양호실로 갈 테니 반장은 주변을 잘 지도하고 자율운동하고 있어!”

“네..네!”

연우는 꿈꿨다. 여 학생을 데리고 양호실로 갔다. 양호실에는 옆친 데 옆친 격 양호 선생님이 계시질 않았다. 일단 연우는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며 침대에 누웠다. 일단 양호 선생님을 찾기 위해 나가려는 순간 연우의 옷을 누군가가 잡아 끌어 당겼다.

“연..연우..”

연우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여학생인 것을 알고 고개를 돌렸다. 다행히 의식이 돌아온 여학생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학생. 괜찮아?”

“네. 괜찮아요.”

“양호 선생님 찾아서 올게.”

연우의 말에 여학생은 고개를 내저었다. 여학생은 연우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다가 이내 말을 못하고 우물거렸다. 연우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구나? 무슨 말이야?”

“그..그게.. 저...”

“응?”

“나야.. 나 기억해? 난..기억하는데. 소꿉친구였으니까...”

여학생의 말에 연우는 놀란 듯이 눈이 커졌다. 소꿉친구라고 한다면 분명 첫사랑말고는... 연우는 곰곰이 생각해본다. 어릴 때 항상. 첫사랑 옆에 있던 또 다른 소녀. 그래.. 그 소녀의 이름은 소리.

“하..하소리?”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자 그 여학생은 얼굴이 빨게졌다.

“정말? 하소리? 와... 반갑다! 넌 나를 기억하고 있었구나.”

“응. 너도 날 기억하는구나. 기뻐.”

그것도 잠시 발소리가 들리더니 곧 양호실 문이 열렸다. 뛰어와서 그런지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는 반장. 연우의 첫사랑이자 소꿉친구. 하지만 그녀는 기억하지 못한다. 연우는 소리에게 섣이라는 포즈를 취하며 윙크를 했다. 그 말은 곧 소꿉친구라는 것을 비밀로 해달라는 것.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는 의미였다. 소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 걱정되어서요. 소리 괜찮나요?”

“응. 정신이 들었어. 문제는 양호 선생님이 안 계셔서.”

“예미야...”

소리는 미안하다는 듯이 이름을 불렀다. 예미는 곧 소리에게 다가갔다. 예미와 소리는 아직까지 사이좋은 친구인 것 같았다. 연우는 미소를 지었다.

“제가 양호선생님 모셔 올게요.”

예미는 미소를 지으며 양호실 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그때였다 또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한사람이 아닌 발자국 소리. 매우 급한 듯이 달리고 있었다.

[쾅-!]

“연우! 괜찮아?!”

[쿵-]



“앗. 조심해.”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 닥친 민혁과 최선생. 민혁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바람에 예미는 뒤로 넘어 질 뻔 했다. 다행히 민혁은 예미를 붙잡고 넘어지지 않게 자신의 품으로 당겼다. 순간 예미는 얼굴이 벌게지고 민혁은 괜찮냐는 말을 하며 거리를 유지했다.

“미안. 너무 급했었거든.”

민혁 선배는 무슨 소리를 듣고 왔는지 연우가 다친 줄 알고 최 선생님과 함께 허겁지겁 달려온 것이었다. 하지만 막상 들어 와보니 눈앞에는 연우가 미소를 지으며 서있었다. 최 선생은 민혁을 밀치고 양호실로 먼저 들어왔다.

“휴.. 연우. 안 다쳤어?”

“아. 최 선생님. 아프신데. 뛰어오시다니. 죄송해요.”

“괜찮아. 예미! 얼른 양호선생님 모셔오세요.”

“아...네!”

예미는 불을 만지며 부끄러운 듯이 양호실을 빠져나갔다. 연우의 눈에는 그 장면을 눈치챌 수 있었다. 웬지 드라마 속에 나올듯한 흐름이었다. 연우는 한숨을 내쉬었다. 결국 첫사랑은 짝사랑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다.